



“자네는 늑어봤는가?
나는 젊어 봤다네”

 **경기일보**

이연우 기자



2015년 10월 저녁에 동기들과 배드민턴을 치던 중 한 사람이 넘어지자 '좌절 퍼포먼스나'고 놀리던 동영상

2015년 겨울, 폭설이 내린 다음날이었다. 수습기자였던 나와 9명의 동기들은 오전 7시까지 각자 배정받은 경찰서에 도착해야 했다.

‘평소보다 20분 정도만 일찍 나르면 되겠지’ 생각하고 비교적 여유롭게 나와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도통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6시30분은 금방 7시30분이 됐다.

‘여기서 뛰면 10분 정도 걸릴 거 같은데’ 싶어 무턱대고 버스에서 내렸다. 눈 밑에 숨겨진 빙판이 얼마나 많던지 걸음



동료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할 때 차비 하라며 받은 현금과 물, 음료. 선배에게 처음으로 받아봤다.

을 걷는 내내 미끄러졌다. 옷가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옆으로 내가 탔던 버스가 지나갔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그 버스 안에서 졸고 있던 동기 언니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오전 8시, 사수에게 “지금 도착했다”는 보고 전화를 했다.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날씨가 이런 걸 어찌겠냐, 조심히 사무실 들어와라” 지시를 받았다.

불안과 긴장이 풀리면서 그제야 온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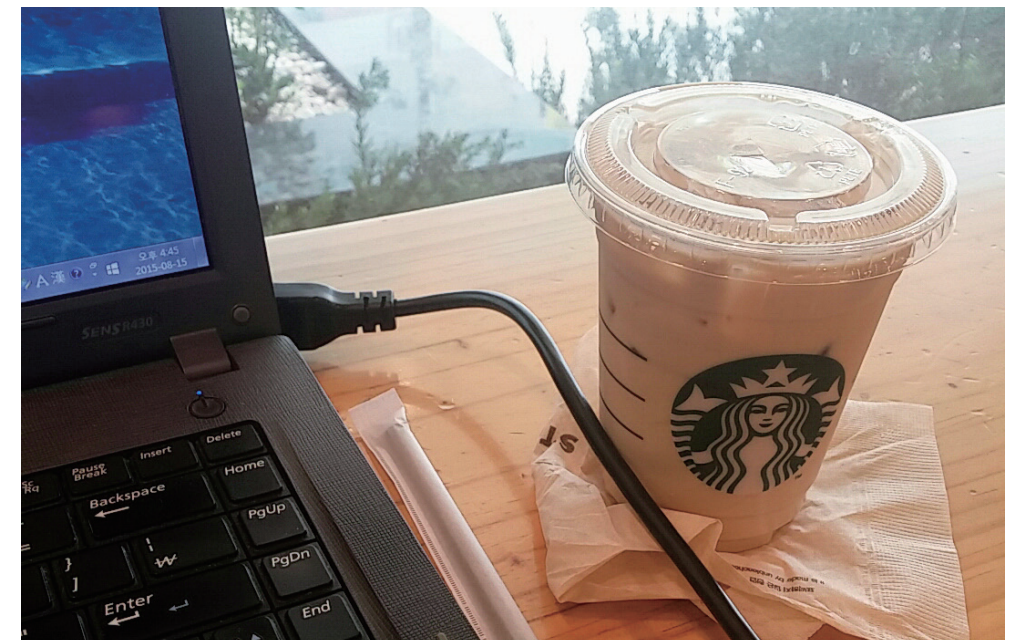
8여 년 전에는 늘 노트북 밑에 사직서를 두고 살았다. 동기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촬영해서 보내준 사진

이 짜늘해졌음을 느꼈다. 얼어붙은 뺨과 손을 비비며 추위를 녹이고 경찰서를 빠져나갈 채비를 했다. 그때 한 경찰이 “몸 좀 녹이고 가요”라며 컵라면 하나를 건넸다. 평소에는 어떤 말을 붙여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내가 몇 살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기자가 원래 꿈이었는데 등을 물었다.

짧은 대화 속 나름의 친밀감을 쌓고 즐겁게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것도 잠시, “늦게 왔으면 여기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찾아야지, 도대체 사무실에서 뭐 하는 거야!” 하는 호통이 들렸다. 우리 10명은 다시 밖으로 내보내졌다.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던 동기들은 “이럴 거면 왜 들어오래”, “우리 방금 왜 혼난 거야?”, “본인들도 우리한테 뭐 시킬지 모르니까 일단 내보내는 거야”라고 툭툭 떠들어댔다. 늘 모범적인 대답만 하던 동기 언니는 그 순간에도 “돌아다니면 뭐라도 보이겠지, 여기서 뭉쳐서 이러지 말고 흩어지자”고 했다.

이후 점심 식사 시간. 동기 언니가 어디냐며 밥이나 같이 먹자고 연락을 해왔다.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자면서, 사실은 아침에 넘어진 내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오늘은 기필코 밥을 사주려 했단다. 정작 넘어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



급하게 기사를 마감해야 하는 상황이라 처음으로 일을 위해 커피숍을 갔을 때 모습. 스스로가 괜히 벅차서 사진을 찍어봤다.

데, 오히려 그 고생 덕에 경찰과 말도 섞을 수 있었는데… 언니는 참 섬세한 사람이구나 싶었다.

그러던 와중 우리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언니는 메시지를 읽고 표정이 굳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밤 혹은 한에 떨고 있는 취약계층을 취재하고 올 것. 모두 똑같은 주제로 하되 각자 다른 기사를 써서 내일까지 올릴 것’

그걸 보고 언니는 “동기들한테 억지로 경쟁심 품게 하는 거 정말 싫다. 이게 기자가 되는 데 무슨 도움이 돼?”라면서

“무엇보다 이진 취약계층을 기만하는 거야”라고 짜증을 냈다.

나는 언니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다. 특히 ‘모범생’ 답지 않은 언행에 놀랐다. “왜? 어차피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다양하게 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보면 재미있고 좋지 않아?”라고 되물었다.

그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던 언니는 뒤늦게 “그만 일어나자”고 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결국 이진 ‘불쌍한 사람’을 누가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으로 쓸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거야. 밤에 우리가 만나게 될 취약계층들은 우리가 기사를 연습하는 ‘수습기자’ 인지, 본인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자’ 인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평가에 괜히 들어오게 된 거고, 재미로만 치부할 건 아니지, 매년 수습들이 들어왔을 때마다 그랬을 텐데...”

식당을 빠져나와 언니와 헤어지면서 나는 그 말을 곱씹고 곱씹었다.

곰곰이 생각해도 그 말이 맞았다. 하 나도 틀린 구석 없이, 언니 말이 다 옳았다. ‘그렇네, 우리 동기들 기사가 전부 보도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럼 인터뷰 해 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지. 재미있는 것도 아닌 거 같아. 결국 제목과 기사로 ‘기레기 짓’ 해보라는 건가. 아무리 수습이라지만 무의미한 일은 하기 싫은데...’ 이런 좌절감이 온몸을 덮었다.

나는 왜 언니 같은 생각을 못 했을까 자괴감이 들기도 했고, 언니는 어른이니까 그런 거라고 합리화도 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럽고 우울했다. 점점 더 나도 그 억지 경쟁에 끼고 싶지 않아졌고 하다하다 기자라는 일을 하기도 싫어졌다.

‘아침부터 눈길에 넘어지면서 경찰서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이었을까’,

‘이렇게 사는 게 기자라면 나는 과연 기사를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일까’ 멍하니 무기력한 잡념을 하면서 커다란 나무 아래 놓인 벤치에 앉았다. 칼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에 묻어있던 눈이 쏟아졌고, 그 눈바람에 마음이 한껏 축축해졌다.

그때 길을 지나던 한 어르신이 자신의 모자를 벗어 내 머리에 올리며 “젊은 학생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추운 날 눈 맞으면서 여기서 청승 떨고 있어?”라고 말을 붙였다. “그러게요,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려는데 “괜찮으면 나한테라도 상담해 봐” 하셨다.

보통의 나였다면 별일 아니라며 멋쩍게 웃고 자리를 떴을 텐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난생처음 마주친 어르신께 인생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해주신 그분은 “자네는 늙어봤는가? 나는 젊어 봤다네” 하며 결국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고 하셨다.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젊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을 원하는 대로 다 해보는 게 좋겠더라’ 하는 내용이었다.

그 말씀이 어찌나 감사하고 인상 깊었는지 나는 곧장 SNS에 그 문장을 그대로 올려뒀다. 그리고 적어도 그런 ‘말’을 ‘글’로 쓸 수 있는 기자가 되고 싶다고 결



여름 휴가철, 운전면허가 없던 동료 기자와 함께 먼 바닷가로 '고물가에 텅 빈 민박집' 취재를 갔을 때 내 모습

심했다. 20글자 남짓 짧은 문장으로 처음 만난 사람을 휘감다니, 나도 그런 ‘펜촉’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자가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일담이지만 이때 게시한 SNS 글로 인해 나는 이 일들이 정확히 몇 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게 됐다)

아무튼 문제의 그날 밤이 됐다. 하늘에선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취약계층을 만날 시간. 동기끼리의 경쟁이 시작되는 시간. 수습기자 생활을 멈출지 말지 결정하는 시간. 동기들은 쪽방촌, 무료급식소, 종교시설 등으로 뿔뿔이

갈라졌다.

나는 목적지를 고민하다 결국 기차역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땐 공교롭게도 역 앞 노상에서 동기 언니를 ‘또’ 마주쳤다.

“언니도 노숙자 만나러 왔어?” 하자 언니는 “응”이라며 손에 든 검은 봉지를 바스락 흔들었다. 저 정체 모를 봉지는 뭘까 싶은 찰나에, 언니는 은색 돛자리를 덮고 있는 한 노숙자분 옆에 앉았다. 나는 그 봉지의 내용물이 궁금해서라도 덩달아 함께 앉을 수밖에 없었다.

대뜸 곁에 다가온 우리를 보고 노숙자

는 욕설을 내뱉었다. 누구냐, 왜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 나라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시비를 거냐 등 우리를 가감 없이 불쾌해했다.

그때 언니가 봉지에서 주섬주섬 소주 1병과 과자 하나를 꺼냈다. “아저씨, 저희는 동네 신문에 막 입사한 수습기자들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처럼 눈 오는 날 춥고 외롭게 혼자 계신 분들 애기 들으러 왔어요. 근데 그냥 찾아오면 상종도 안 하실까 봐 소주랑 새우깡 사 왔어요” 하고 당차게 입을 뗀 언니는 “제 돈 주고 산 거니까 제가 먼저 먹어도 되죠? 그 다음에 아저씨가 드세요” 하고 별걱정 없는 강소주를 들이켰다.

놀란 내가 언니 손을 붙잡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만류하자 노숙자는 도리어 나를 말리며 “더 있어?”라고 했고, 언니는 봉지에서 또 다른 소주 1병을 들어 보였다. 그리고 “제가 이거 사 오길 잘했죠? 그나마 이거 드셔야 몸도 마음도 덜 추우실 거 아니에요”라며 “저는 얘기만 듣고 갈래요. 이거 기사 안 쓸래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랑 얘기나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8년째 거리 생활을 하고 있던 노숙자 아저씨는 ‘잘 나가던 30대 사업가 시절’ 자랑을 꺼냈다. 어느 지역 기차역이



동기이던 기자들이 하나 둘 퇴사를 할 때, 괜히 싱숭생숭한 마음을 국제프레스카드를 보며 다잡았던 기억이 있다.

따뜻한지, 어느 지역 탑승객들의 인심이 푸근한지, 어느 지역 우동 가게가 맛있는지도 소개해줬다. 그러면서 “기자 선생님들은 한평생 알 일 없겠지” 했는데 언니가 “지금 아저씨 덕에 알게 됐잖아요”라고 하자 껄껄 웃으며 재미있는 아가씨라고 손뼉을 쳤다. 나는 덩그러니 그들을 쳐다보기만 했다. 그리고 언니의 태도나 화술을 보며 ‘이런 사람이 기자 해야 하나 보다’ 싶었다.

자정이 다가와 ‘전원 퇴근’ 명을 받고 슬슬 일어났다. 거나하게 취한 언니는 “나 내일 퇴사할 거야” 하고 “방금



비 오는 날 비행기를 타고 싶던 버킷리스트가 있었다. 마침 처음으로 제주도에 출장가는 날 빗방울이 떨어져 벽참이 커졌다.

들은 얘기들은 네가 르포로 쓰면 돼. 나는 정말 술 마시고 싶어서 온 거야”라고 했다.

겉핥히면 ‘관두겠다, 때려치우겠다’ 하면서도 꾸역꾸역 경찰서 출근 도장을 찍던 우리였지만 이 말 만큼은 진심 같았기에, 그리고 언니가 기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기에, “일단 오늘은 눈도 많이 오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술 깬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설득했다. 그리고 ‘나의 하루’를 전해줬다.

“언니, 그 싸늘한 경찰 알지? 아침에

갑자기 컵라면을 주더라... 낮에 언니 말을 듣고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이 일이 적성에 안 맞아... 그 어르신이 ‘자네는 늙어봤나, 나는 젊어 봤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피곤한 하루인데 어떻게 이런 하루가 있지 싶기도 해” 등 주절댔다. 그리고 “나는 소주를 사 온다는 발상은 상상도 못 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하자 언니는 “너야말로 옷 찢어지고 손 다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네가 소주를 사 왔어야지. 네가 마셨어야 되네. 어쨌든 우리 둘 다 마지막 근무 같은데 기념으로 집 가서 2차나 하자”고 어깨동무를 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언니는 경찰서에 가지 않겠다며 1시간만 더 자고 일어나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딱 맞춰 사무실로 출근을 한 뒤 곧바로 사직서를 냈다.

다른 동기들은 ‘갑자기 왜?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하고 속닥속닥 걱정했다. 선배들도 마찬가지였다. 각 사수는 부사수인 우리들을 각각 따로 불러내 ‘이유를 알려줘야 개선하거나 할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인사한 언니는 그대로 사무실을 벗어났다. 선배들 말에 의하면 언니가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고 싶은 일 찾아 떠나는 게 맞겠더라”면서 “저에게 기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했단다. 나는 그 결정이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결단력이 멋졌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언니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떤 한 아기의 엄마가 됐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던 기자의 삶도 여전히 이어가는 중이다. 우리 모두 그때의 회사와는 달라졌지만 신기하게도 언니는 8년 전 나에게 컵라면을 줬던 그 경찰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출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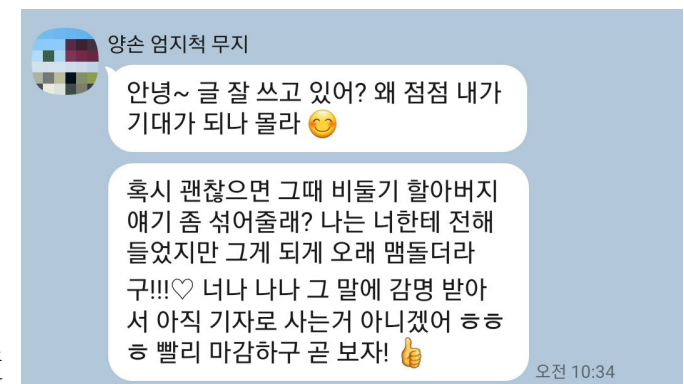
공사가 진행 중이던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취재하면서 별 일을 다 겪는구나 싶었다.

“언니, 우리 수습 때 생각나? 나 눈길에 넘어지고 밤에 언니랑 노숙자 아저씨 만난 날. 언니 그 다음 날 사표 냈잖아”

“생각나. 심지어 아침부터 밤까지 다 기억나”

“지금 돌아보면 별 특이한 것도 없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날이 잊히질 않아. 그때 우리 하루종일 ‘기자란 무엇인가’, ‘좋은 글은 무엇인가’, ‘취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잖아”

공모전에 도전하겠다고 한 후 동기 언니와 나눈 대화



“그때는 왜 그렇게 사사건건 진지하고 힘들었나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어리긴 어렸나 봐. 우리 맨날 ‘적성이 아니다’, ‘이 길은 안 간다’ 했는데 용케 아직도 기자를 하고 있네. 근데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옛날 얘기를?”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번에 공모전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때 얘기 써볼까 해서. 나한테는 인상 깊은 에피소드라... 언니가 주인공인데 괜찮아?”

“야 안돼, 나 애 엄마잖아. 조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기자들 다 똑같이 살고 다 똑같이 생각할 텐데 뭘 그런 걸로 써”

“회사랑 이름 절대 안 쓸게, 아무도 그 언니가 이 언니인 거 모르게 할게”

“주제가 뭘데”

“그건 아직 몰라, 생각 안 했어. 가벼운 글이어도 된대. 지방지 신입 기자의 고충 정도이려나”

“그럼 다 쓰면 보여줘. 아니다, 무슨 내가 너한테 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신상만 안 드러나게 알아서 잘 써줘. 나 지금 애가 울어서 나중에 연락해야겠다”

며칠 뒤 언니는 이모티콘과 함께 웃음기 가득한 메시지를 보냈다.

“글 잘 쓰고 있어? 점점 기대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웃기다. 혹시 그거 생각나려나? 공원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네는 늙어봤나, 나는 젊어 봤네’라고 했었잖아. 나는 너한테 전해 듣고 그게 오래 맴돌더라고. 생각나면 그것도 같이 써줘. 너나 나나 그 말에 감명받아서 아직 기자로 사는 거 같은니까!” 📌

경기일보 이연우 기자